

# 수원지역 논에서 파리목의 과별 발생비교

엄기백, 박홍현, 박창규, 전정배<sup>1</sup>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해충과, <sup>1</sup>(주)UNIMO농원 부설 환경생태연구소 곤충연구실

논 생태계내에서 다양한 생태적 지위를 갖는 파리목 곤충의 발생을 조사하였다. 표본 조사는 2000년에 수원시 소재 농과원 논포장(600평)에서 Sweeping(6월16일-9월22일, 총 13회)과 Malase trap(8월5일-9월15일, 총 6회)을 이용하였다. Sweeping 조사에서는 15개과 1,015개체가 채집되었고, 이중 깔다구과(71.7%), 노랑굴파리과(12.3%), 물가파리과(10.8%), 집파리과(1.6%) 등이 우점 그룹이었다. Malase trap에서는 23개과 2,477개체가 채집되었고, 깔다구과(81.8%), 장다리파리과(6.1%), 집파리과(2.9%), 꽃등에과(2.8%), 머리파리과(1.5%)등이 주요 그룹이었다. 그리고 Malase trap과 같은 기간내(8월초-9월중순) Sweeping 조사에서는 노랑굴파리과(72.9%), 물가파리과(9.5%), 깔다구과(6.1%)순으로 우점하여 파리목 곤충의 우점 그룹이나 점유율등은 조사 시기나 조사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Sweeping 표본들에 있어 우점 그룹들의 종구성을 분석한 결과, 깔다구과는 5종이 조사되었고 우점종은 *Paratendipes* sp.(50.0%), *Chironomus kiiensis*(25.4%), *Cricotopus sylverstris*(23.2%)였다. 물가파리과는 9종이 조사되었는데, *Pseudopelina* sp.(62.3%), *Scatella stagnalis*(17.7%), *Typopsilopa chinensis*(8.2%)등이 우점하였고, 벼 해충인 *Hydrellia griseola*(2.7%)가 조사되었다. 노랑굴파리과는 2종 이상이 조사되었는데, 이중 벼 해충으로 알려진 *Chlorops oryzae*(17.2%)의 점유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Sweeping 표본들에 있어 전체 밀도변동패턴은 7월중순까지 높은 밀도를 유지하다가 이후 급감하여 낮은 밀도로 유지되었는데, 깔다구과, 물가파리과에서 이와 비슷한 변동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노랑굴파리과에서는 7월중순 이후부터 밀도가 높아져 8월말까지 증가하는 다른 패턴을 나타냈다.